

## 大學院教育 改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金 安 重

(서울대 教育學科)

## 1. 序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원교육의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원은 대학 안에 설립되어 있고, 따라서 대학원교육은 원래 우리의 대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학원교육에 따라 다니는 추가적인 문제들까지 합쳐서 안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근래에 들어서는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대학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대학원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추세를 맞이하고 있다. 개별 대학이나 분야 또는 학과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원 학생의 수가 학부 학생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어떤 일에서나 양적 성장은 질적 빈곤을 수반한다. 이 법칙은 특히 교육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우리 대학원의 양적 팽창의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것은 전문화 시대의 도래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일이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양적 팽창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 경의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하면서 이공계열에서

만 박사급 인력이 현재보다 약 9,000명, 석사급은 약 25,000명 정도 더 요청되리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부터 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약 34,000명 정도의 대학원 졸업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학원교육이 대학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줄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의 대학이 이러한 '大學院中心' 교육에 필요한 체제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의 대학원은 대학의 부속기관 정도였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대학원'에는 대학원장만 있을 뿐, 별도의 조직이나 전문인력이 주어지지 않음은 물론, 학생들조차도 연구실이나 도서관 하나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한 채 더부살이 정도의 교육환경을 감수해 왔다. 이하에서 제언하려는 것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우리의 대학원 교육을 염두에 둘 때, 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전문적 지식의 탐구와 습득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나 운영방식을 고쳐나갔으면 하는 희망에서 나온 것들이다.

필자는 대학원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며, 이 점에서 이 글은 일반적으로 대학원에서의 연구를 지도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대변하려고 한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 글에서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서이다. 첫째로 대학원 학생의 선발과정과 학업관리에 관한 문제, 둘째로 논문지도의 문제, 셋째로 강의와 연구 프로젝트의 연계문제, 넷째로 도서관 활용의 문제, 다섯째로 대학원 학생들의 학사관리에 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 몇 가지 문제들과 관련된 제도적·행정적 개선이란 무슨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제도적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 듯하다. 그저 현재의 대학원 여건을 조금만 더 개선하여 그 안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배우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 현재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인 것이다.

## 2. 學生 選拔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신입생을 뽑을 때에도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을 일정한 비율로 반영하여 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들이 전반적으로 평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역이나 학군에 따라서 또는 같은 지역 같은 학군 안에서도 학교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다. 그런데도 대학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원에서의 학생 선발에서는 거의 획일적으로 입학시험 점수만이 사용되고 있다. '입학시험'이라는 일회적 평가 점수가 고도의 전문적인 수학능력이나 연구자질을 측정하는 데에 얼마나 적합한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고가 있어야 한다. 대학원에서의 연구는 분야와 전공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것이기 때문에 대학입시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형식의 입학시험 제도로서는 학생선발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분야와 전공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학생선발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선진국의 세계적인 대학에서 대학원 학생들을 선발할 때에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학부에서의

수학 결과와 면접이다. 특히 면접은 대학원 학생선발에서 거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데, 이것은 교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그만큼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지도할 학생은 자기가 뽑는다는 생각이 교수들에게 보편화되어 있고, 교수들은 자기가 지도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 면접결과를 그만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수들의 최종적인 판단 속에는 그 학생의 학문적인 능력이나 언어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이나 검사 결과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학문적·언어적 능력의 측정에는 우리의 경우처럼 대학마다 그때 그때 시행하는 일회성의 입학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화된 표준검사 결과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교수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학생을 자신의 지도학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 있는 표준화 검사를 통하여 지원자의 능력을 해당 대학에 알려 줄 수 있는 평가기관과 평가방식이 확립될 수 있다면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선발의 객관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인 적성이나 전문성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도 현행의 대학별 입학시험 제도보다는 학부에서의 성적과 졸업논문, 학부 지도교수의 추천서, 그리고 지원자 본인의 학업 및 연구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 일할 사람들이란 매우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한정되기 마련이며, 어떤 분야에 어떤 능력의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은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교수들은 그 사회에서 지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그 사회의 각 분야에서 앞으로의 전망과 예측을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점은 대학원 학생의, 나아가서 대학 학생의 선발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교수들은 학생선발의 단계에서 이미 해당 분야와 지원자 사이를 연결하여 판단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그러한 판단이 최대한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선발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선진외국에서 대학원 학생의 선발에 교수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교수들도 학생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들을 고려하면서 면접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의도와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어야 하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현재와 같은 엄격한 정원 입학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할지 모른다. 다 알고 있는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학 정원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원도 이 제도의 작용을 받고 있다. 대학의 입학 정원제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는 하지만,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정원 늘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 효과를 거두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점은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적지 않은 대학들이 대학원—특히 특수대학원—학생을 늘림으로써 부족한 대학제정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 이런 형편하에서는 전공분야별로 대학이나 학과, 그리고 교수들에게 학생의 선발에 관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학원 학생의 선발에 보다 융통성과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노력은 대학측에서도 그에 맞는 의도와 자세를 보여줄 때에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학은 아직 몰라도, 대학원의 교육이 지금까지와 같은 고식성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학문경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빨리 적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3. 論文指導의 문제

대학원교육에서의 핵심은 일정한 기간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논문지도에서 나타난다. 대학원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단 자신이 속한 전공영역에서 독립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수준이 최소한의 일정한 선에까지 올라온 경우에만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 대학원교육은 이 점에서 전혀 갖출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대학원에서 발표되는 학위논문의 수준을 보면 그 대학원의 질을 알 수 있는데도 현재 우리나라의 각 대학원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은 천차만별이라 할 만큼 그 수준이 제 각각이다. 심지어는 동일한 대학 동일한 전공이나 학과 안에서도 그 질이나 수준이 극과 극이라 할 만큼 들쭉날쭉이다. 이것은 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연구와 그 연구과정의 지도가 일정한 제도적 여건과 뒷받침하에 안정된 궤도에 올라있지 못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이나 그 지도교수의 개인적 변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원교육은 논문은 있으나 연구는 없는 교육, 교수는 있으나 지도는 없는 상태, 발표는 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대학원에서는 아직 교수들의 논문지도에 일정한 크레디트를 주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는 학기별 교수의 부담을 순전히 강의시간의 수에만 의존해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강의시간 수만 채우면 1년 동안 단 한 편의 논문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도 교수직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별 논문지도 학생의 숫자도 들쭉날쭉인 것이 사실이다. 한 학과나 한 전공 안에서도 교수에 따라서는 많게는 수십 명의 학생을 맡아서 씨름하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한 명이나 두 명의 학생만 명목상으로 지도하고 마는 교수들도 있는 것이다. 대학원 학생들의 논문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수들일수록 소위 '외도'를 하지 않는 교수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교수가 대학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만 몰두할수록 학교 바깥의 일들—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 간에—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으로 유명한 교수들이 더 대접받는 풍토 때문인지 학생들의 논문지도 같은 것을 열심히 하는 교수들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고 1년 내내 '바깥으로 뛰는' 교수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보통이다. 학생들이 써온 글에 열심히 붉은 줄을 그어가며 맞춤법까지 지도해 보아야 아무런 크레디트도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실정에서 생겨난 고약한 풍토임에 틀림없다.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지 않은 교수들일수록 그 학생의 논문을 통과시키는 일에는 인심이 후하다. 그래서 대학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우화가 있다. 어느날 늑대를 만난 토끼가 자기는 요즘 논문을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 무슨 내용의 논문을 쓰느냐고 묻자 '토끼가 늑대를 잡아먹는 방법'에 관해서라고 토끼가 대답했다. 화가 난 늑대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면 자기가 토끼를 잡아먹어 버리겠다고 눈을 부라렸다. 그러자 토끼는 늑대가 자기를 따라오면 그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어느 킁킁한 굴 속으로 늑대를 끌고 들어갔다. 한참 후 토끼가 입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혼자 밖으로 나오자 다른 동물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사자가 한 마리 역시 입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앉아 있었다고 한다. 토끼의 지도교수가 바로 사자였던 것이다. 누가 지어냈는지는 몰라도, 논문을 쓰고 있는 우리의 대학원 학생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했던 이 우화는 우리나라의 대학원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약한 풍토를 이층으로 풍자하고 있다. 학생들의 연구와 논문의 수준에 엄격한 기준을 갖다대서 조금이라도 기준미달의 논문은 통과시키려 하지 않는 고지식한 심사위원들은 이 우화 속의 순진한 늑대에 비유된다. 또 이런 풍토에서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러 들지 않는다. 자기가 선정한 제목이 논문주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면 요령 좋게 학위를 받아 나갈 수 있는지만 '연구' 하는 학생들은 이 우화 속에서 토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대학에서 논문지도는 버려져 있다시피 하다. 논문의 질에 대해서 전혀 심각한 반성이 없으며, '논문지도'는 완전히 허풍

속에 띄워져 있다. 교수별 논문지도 학생의 수와 그 밑에서 발표되는 학위논문의 질을 고려하여 지도교수에게 일정한 크레디트를 주도록 하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이 황무지 상태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실한 지도하에 배출된 '고급' 인력이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인으로서 자격미달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4. 講義와 研究 프로젝트의 연계문제

소위 '연구 프로젝트'라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지도와 함께 오늘날 대학과 대학원교육의 상징처럼 되었다. 그러나 연구 프로젝트는 대학의 또다른 사각지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양심적인 교수들의 의견인 것이 사실이다. 소위 '리서치 앤드 디벨로프먼트' ('R & D')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막대한 경비와 외형적 인력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학문 발전과 지적 진보의 모습은 아무런 '연구비'도 받지 않고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소수의 양심적인 학자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나 자금의 소스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운영방식도 약간씩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정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지만, 교수들의 해외파견을 통하여 학문적 선진국에서의 연구 및 교수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국내 대학끼리의 파견이나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도 있다. 또 해외의 학문적 저술이나 고전을 번역하는 일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국가의 공적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그리고 개인 기업체에서 '투자성'의 연구주제들을 골라서 지원하는 '준 정책개발' 연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유형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의 학문적 발전이나 이론개발에 별다른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별다른 공헌이 없는 정

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경우에 ‘열 불보다는 깻밥’이라는 현상이 빚어지고, 그 때문에 대학교수들의 연구 분위기를 해치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지로 자세한 통계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연구비 지원을 얻어서 이루어진 연구 보고서들이 해당 분야의 첨단적인 이론개발이나 학문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경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연구비를 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그 보고서는 어느 창고에 쌓여서 해를 묵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잘 되어 가는……이런 것이 실지 형편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 및 인문계 열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연구비 신청을 ‘귀찮게’ 생각하는 교수들이 다수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연구비 신청은 늘 하는 교수들이 한다. 연구 용역을 주는 쪽에서는 한 사람이 동일한 기간 안에 여러 연구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을 적용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교수의 양해를 얻어서 그 명의로 연구비를 신청하고, 연구보고서는 부탁한 쪽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구들이 원래의 취지대로 좋은 결과를 생산할 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 해외과전 연구지원의 경우에 그런 것이 많지만, 일정한 기간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았던 교수들이 연구비를 ‘순서대로’ 타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래저래 대학 안에서의 연구비라는 것은 ‘갈라먹는’ 것 정도 이상의 의미가 없으며, 연구비와 보직을 좇아다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서먹한 느낌마저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교수들 사이에는 “연구의 최대의 적은 연구비이다.”는 아이러니가 유행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름길은 없어 보인다. 다만 연구비를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안목을 갖추도록 하고, 제출되는 연구비가 원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연구계획서의 선별과 연구 결과 보고서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필요할 뿐이다. 실지로 ‘연구’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구비의 집행이나 결과 보고서의 제출 같은 것을 지나치게 행정적·관리자적 측면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연구를 방해하는 것과 같다. 이 점에서 대학 안의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을 발굴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학교수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는 한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교육’이라는 일의 생리이다. 연구비를 주는 재단이나 기관에서는 바로 이것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연구실이나 강의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돈이 필요해서’ 따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꾸며야 하는 연구는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연구비를 지급하는 쪽에서는 대학의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수들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을 알아야만 보고서의 제출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껍데기 연구들이 사라질 수 있다. 이것만이 ‘연구 프로젝트’와 강의실을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연구비를 통해서 ‘회수’하는 것은 장기적인 것이 된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연구와 지적 진보나 발전이라는 것은 원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것에 필요한 시간이 다 들어갔을 때에만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지적 진보에서 ‘생략’이라든가 ‘도약’ 같은 것은 없다. 모든 ‘생략’은 언젠가 되돌아 와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인간 정신의 본성이다.

특히 대학원은 교육의 현장과 ‘연구’가 접목 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교수들이 한 학기 대학원 강의를 계획할 때에는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가장 도전해 볼 만한, 가장 연구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나 분야를 고려해서 계획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학원 학생들은 이미 전문분야의 연구에 상당히 입문한 사람들로서, 그 자체로서 교수의 연구를 돕기에 적합한 인력이기도 하고,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논문을 작성하기도 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대학원이 궁극적으로 학문연구의 핵심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

트'의 도입도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 5. 圖書館 운영문제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도서관 중심'이 아니라 교수들의 '연구실 중심'이다. 도서관에는 우선 각 전문분야의 정보와 신간들이 망라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들이 그렇지 못하니 교수들은 자기 분야에 관한 한 자신의 '도서관'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각 교수 연구실에는 책이나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언제나 연구실의 평수를 늘려 달라는 교수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대학원 학생들도 자기의 연구주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해 보기 위해서는 도서관으로 가지 않고 교수 연구실로 간다. 이 현상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이며, 교육적으로도 불합리한 결과를 맞는다. 교수는 연구실을 지키되 학생들이 찾아오면 연구에 필요한 가이드를 주어서 도서관으로 보내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에는 언제나 필요한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굳이 학생들이 교수들의 책을 빌려가서 '불법'으로 복사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교환교수들이 왔을 때에 가장 놀라게 되는 일의 하나가 이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학생들이 무단으로 자기네들 책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는 본국에 돌아가서 이야기하기 마련이고, 이것이 '지적 소유권의 보호'라는 국제적인 형태의 압력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교수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창피하기도 하지만, 일일이 그 많은 자료와 도서들을 학생들에게 빌려주고 또 회수해야 하는 노고를 치러야 한다. 또 우리의 교수 연구실에는 언제나 대학원 학생들이 한 명씩 붙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교수의 연구를 옆에서 항상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호뭇해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대학원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교수들의 연구실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일 뿐이다.

대학원 학생들은 도서관이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서관의

장서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또 학생들이 하루 종일 책을 볼 수 있는 열람 공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박사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캐롤'의 설치와 운영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 같다. 어차피 우리의 대학이 대학원 학생들에게 별도의 연구실이나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할 형편이라면,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캐롤'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이 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을 때에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학교에 와도 있을 곳이 없어서 강의시간에만 맞추어서 헐레벌떡 달려왔다가 강의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듯이 보인다.

교수들의 입장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도서관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우선 자기 '도서관'을 따로 갖추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가 여러 부 비치되어 있다면, 학기가 시작될 때에 학생들에게 그 학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시하고, 학생들이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비좁은 연구실에 끌어들여서 별도의 책상과 의자를 놓고 함께 공부해야 할 필요도 없어진다. 좁은 연구실에서 교수와 학생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또는 돌리고—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더욱이 상대가 여학생일 경우에는 불편이 서로 배가된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여학생들이 커피 잔을 들고 왔다갔다 하며 교수들의 차 심부름이나 하는 광경도 어차피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지 않은가?

## 6. 學事管理의 문제

대학원교육이 그 이전 수준 교육과 한 가지 다른 점은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실지로 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단계에서는 거의 언제나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지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거처가야 할 일련의 행정적 절차나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학생 스스로 알아내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가

학생마다의 진척과정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고 관리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대학원 학생의 학사관리가 학부 학생들의 그것과는 다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부각된다.

대학원 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거처가는 과정은 크게 보아서 두 과정으로 대별된다.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기까지가 하나이고,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앞의 과정에서는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그런대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거치는 과정이므로 마감 날짜라든가 마감 학기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누기가 그만쯤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학생에 따라서는 현직에 봉사하면서 대학원과정을 밟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자신의 ‘스텐딩’이 지금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뒤의 과정, 즉 논문의 집필에만 매달려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것은 더욱 중요하다.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는 미리 등록을 해야 하는데도 그 날짜를 넘김으로써 한 학기가 늦어지는 경우 같은 것이 발생하기 쉽다. 또 지도교수의 선정이나 지도위원 또는 심사위원의 구성 같은 일에서도 학생이 필요한 서류나 형식을 제 때에 갖추지 못함으로써 차질이 생기는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원에서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필요한 때에 본인에게 통보해주는 제도를 갖추었을 때에 해소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마다 또는 전공영역마다 달리하고 있는 논문작성의 형식문제도 대학원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미국의 주립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블리오그래피’ 제도는 이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해당영역에서 정한 형식대로 논문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형식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개작을 지시해주는 것이 이 제도이다. 현재 우리의 대학원에서는 이것이 교수의 몫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교수들이 학생의 글을 일일이 검토해서 필요한 수정을 지시하는 경

우는 드문 편이다. 그러므로 논문마다 그 형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고, 짧은 심사기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도 없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질적으로 저하시키는 데에 공헌하고 있을 뿐이다. 대학원에서는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대학원 중심’ 대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교육은, 다시 말하지만, 학생에 대한 개인지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개별지도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대학원의 행정체제도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서 이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매 학기마다 교수들에게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려주고, 학생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적 뒷받침은 단순한 ‘행정’—이것이 무슨 의미이든간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그 지도의 질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 7. 結

이상에서 언급한 것 중에는 전문적인 눈으로 보아서 사실이 아닌 것도 들어 있을지 모르며, 오해에 근거를 둔 잘못된 주장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학원교육은 커다란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는 추호의 의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은 그러한 큰 변환으로 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고려사항들이라고 믿고 있다. 대학에는 ‘대학교육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므로 필자가 체계없이 나열한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일지라도 그들이 언젠가 대학원교육을 개혁하는 플랜을 마련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화해서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무슨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큰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대학원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새로운 도서관을 설계한다거나 할 때에 조금만 신경쓰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믿는다. ■